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남 귀 숙

이 수 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때 남녀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부산지역의 대학생 399(남 133명, 여 206명)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갈등전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CTS-2),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분노표현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여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도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분노표현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완전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높아지고,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및 상담에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역기능적 분노표현, 기능적 분노표현

* 본 연구는 남귀숙의 2018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구술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수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Tel: 051-663-4328, E-mail: leesooj@ks.ac.kr

사랑이란 가명을 쓴 범죄인 ‘데이트 폭력’은 신체 및 정신을 황폐화시키며, 심각한 경우 개인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나 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연인간의 ‘사랑싸움’ 등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인식제고는 매우 미약한 편이다. 영국에서는 ‘클레어법’,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 등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검찰에서 2018년 7월부터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데이트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놓고 ‘연인이었거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등’의 신고 대상으로 피의자를 엄정 수사하는 집중 단속 기간도 실시하여 4185건의 신고를 접수, 2052명을 형사입건(구속 82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는 연일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례가 끊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3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으로 적발된 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20~30대가 58.3%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35.6%, 60대 이상이 3.3%, 10대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피해 유형은 폭행, 상해(6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감금, 협박(17.4%), 성폭력(5.4%) 등이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초기에 해당하며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구

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Erikson(1950)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제로 이성교제를 통한 상호 친밀감 형성을 꼽았다. 즉, 이 시기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성인초기의 발달과제를 잘 거친다면 후에 배우자 선택에 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교제 중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연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는데, 이 중 최악의 방법이 폭력이다(Levy, 1991). 이러한 대학생의 폭력 경험은 하나의 외상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문제와 대인관계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van der Kolk, 1996; Briere, 2002; Briere & Jordan, 2009). 따라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성숙한 이성교제 방법을 익혀 적응적으로 발달 단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내적특성에서 성격적 요인은 데이트 폭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안귀여루, 2006). 성격적 요인 중 자기에 성향자는 그 특성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 지지되어왔다(박세란, 2004; 이준득, 2005; Wink, 1991). 대다수의 연구가 외현적 자기에의 속성을 다루고 있으며, DSM-IV와 개정된 DSM-5에서의 진단기준 또한 외현적 자기에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거대한 자기 표상과 자기과시의 경향으로 특징 지워지는 외현적 자기에와는 달리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감과 취약성을 가지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이성관계에서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지속시키지 못하며, 분리의 어려움이 따른다(Akhtar & Thomson, 1982). 이들은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상대의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에 분노하게 되고 상대를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Dutton, 1998; Follingstad, Bradley, Helff & Laughlin, 2002).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관련하여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백승혜, 현명오, 2008), 분노의 감정은 데이트 폭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김유정, 서경현, 2009; 서경현, 2002).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내면적으로는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나,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위축된다. 또한 취약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의 정서를 억누르고 남들의 시선을 즐기지 않는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정서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압하는 경우가 더 많다(백승혜, 현명호, 2008). 이러한 분노억압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서수균, 권석만, 2002) 데이트 폭력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서 중 하나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데이트 상대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분노의 적응적인 측면으로 분노를 잘 조절하여 표현하면 대인관계나 데이트 상황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분노표출이나 과도한 분노억압은 개인내적으로 부적응적인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민정, 김선정, 조서지와 조인경(2015)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남녀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국외의 선행연구중에 Erdem과 Sahin(2017)의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데이트 폭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yan, Weikel과 Sprechini(2008)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신체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배재은, 2016; 이아람, 2017),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가 증가한다고 하였다(김시원, 박경, 2012). 스스로 감정을 다루고 위로하기 어려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이성파트너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는데, 그러한 수단으로 폭력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배재은, 2016).

김시원, 박경(2012)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와 비교하

여 본 연구는 2016년 경찰청 자료의 가해자 연령 집단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0~30대의 대상 중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변인의 영향을 탐색하고 연구결과가 대상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혀 이를 종합하여 향후 데이트 폭력 관련 예방 및 상담접근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분노와 내현적 자기에

분노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분노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에 큰 훼손이 가지 않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분노상황에서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개념이 매우 취약하고 자존감이 낮다(Akhtar & Thomson, 1982).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부정사건에 대해 외현 및 통제집단에 비해 외부귀인을 하며,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 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언어적 공격성과 적대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2004). 또한, 이준득 등(2007)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집단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공격적이었으며 분노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분노표출기제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백승혜와 현명호(2008)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분노를 느낄 때 분노표출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분노

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득(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른 실험실 상황에서 분노반응을 증명해 보이는데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지적 능력 좌절 상황에서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로 해소되지 못한 분노로 인해 광범위한 수준의 분노를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Bushman & Baumeister 1998; McCann & Biaggio, 1989; Wink, 1991),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박세란, 2004; Bushmann & Baumeister, 1998).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더욱 왜곡하거나 심각한 문제로서 해석하고 이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데(Epstein, Finnegan, & Bythell, 1979),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대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분노를 느끼게 된다(서수균, 2004).

분노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분노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Norlander & Eckhardt, 2005; Taft et al., 2007). 선행 연구에서는 분노가 가해행동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Shorey, Cornelius, & Idema, 2011).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Harper et al., 2005)와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Shorey et al., 2011) 모두에서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노표현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조절로 분류된다(Spielberger, 1985). Deffenbacher(1992)는 역기능적 분노를 빈도, 강도 및 지속기간이 과도한 수준에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Spielberger, Krasner & Solomon(1988)은 분노 표출과 분노 억압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이고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 표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분노표출은 개인이 분노를 경험할 때 타인에게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극단적 모욕과 같은 언어적 공격 등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외부대상을 향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억압은 분노를 경험하지만 이를 자기에게로 돌리거나(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에 대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속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1999)는 분노를 기능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분노를 표출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조정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자주 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분노표출 수준이 높고 분노조절 수준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Dye & Eckhardt,

2000).

국내에서는 김시원과 박경(2012)의 연구에서 분노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또한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가해행동을 할 경향성이 높고, 데이트 관계에서의 가해행동 경험자의 분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상희, 2017).

분노의 정서가 기능적으로 사용되면 문제 해결적인 행동을 동기화시켜 개인을 적응적이게 하는데 매우 필요한 감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갈등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충동적으로 폭력과 같은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Derryberry & Rothbart, 1988).

데이트 폭력의 가해이론

공격성에 관한 최근의 이론 중에 일반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GAM) 이론은 인간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이다(Allen, Anderson, & Bushman, 2017). GAM 이론은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어떻게 공격적인 행동을 유도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입력단계로 개인과 상황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단계인데, 개인요인은 어떤 개인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인 차이를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 즉,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높은 자기 효능감, 공격에 대한 규범적 수용, 공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적대적인 성격의 편향, 공격적인 행동대본, 폭력의 도덕적 정당화, 비인간화, 책임의 전위, 낮은 자기 통제, 높은 신경성, 낮은 친화성 및 낮은 성실성 등이 있고, 성격적인 요인으로 불안정한 높은 자기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로단계로 공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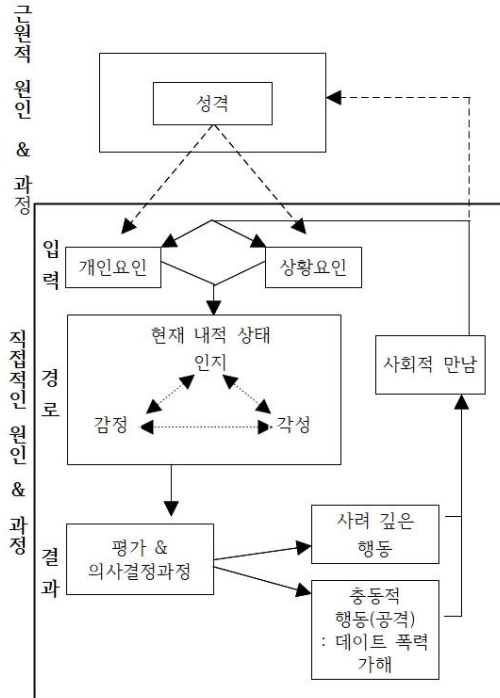


그림 1.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GAM)

사고, 화난 감정 및 각성 수준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개인 및 상황요인은 개인의 감정, 인지, 각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이 연인과의 갈등상황에서 적대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분노가 증가할 수 있고 차례로 각성이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결과단계로, 평가 및 의사결정 단계로 공격적/비공격적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즉 상황을 판단하고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하여 역기능적으로 분노표현(분노표출, 분노억압)을 하게 되면 데이트 폭력 가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분노표현(분노조절)하면 원만하게 갈등상황을 종료할 수도 있다.

GAM은 많은 상황에서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경로를 설명할 때 GAM 이론을 적용하기도 한다(Chester & DeWall, 2017). 즉 데이트폭력은 주기적이며, 다른 행위에 대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소인을 다루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GAM 이론이 데이트폭력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GAM 이론을 적용하여 가설을 설정하면 첫 번째 입력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요인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친밀한 관계인 데이트관계의 갈등상황에서 두 번째 경로단계에 그들의 높은 적대감과 만성적인 분노감이 각성하게 되어, 세 번째 결과단계에서 이러한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데이트 폭력이라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때 고민정, 기선정, 조서지와 조인경(2015)의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고한 결과가 있으므로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가설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현적 자기에, 데이트 폭력 가해, 분노표현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남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분노표현방식을 매개로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여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분노표현방식을 매개로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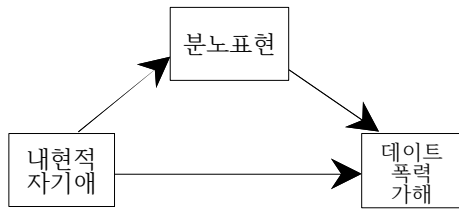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10부를 배포하였으며, 미회수된 질문지와 일부 척도 전체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339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생 339명 중 남학생은 133명(39.2%), 여학생은 206명(60.8%)이었고, 연령은 만 18세~21세는 188명(57.5%), 만 22세~25세는 141명(42.5%)으로 분포 되었고, 예술체육계열이 25명(7.4%), 인문사회계열이 227명(67%), 자연계열이 35명(10.3%), 공과계열 52명(15.3%)로 분포 되었다.

측정 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Akhtar와 Thompson(1982)이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새로운 문항을 개발 및

보완하여 완성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뜻한다. CNS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목표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 (예: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예: 나는 여거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착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착취/자기중심적’ (예: 나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한 특성으로 지나친 열등감과 취약성을 나타내는 ‘과민/취약성’ (예: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내향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특성을 나타내는 ‘소심/자신감 부족’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이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목표불안정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3, 착취/자기중심성 .81, 과민/취약성 .87, 소심/자신감부족 .79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가해 척도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CTS-2)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맞게 수정 보완한 김정란(1996)의 개정판 갈등책략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에서 '매우 자주 있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판 갈등책략척도는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해의 입장에서 '심리적 폭력' (예: 이성친구의 약점을 잡아 모욕을 한 적이 있다), '신체적 폭력' (예: 이성친구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성적 폭력' (예: 성행동을 하기 위해 이성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을 각각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란의(1999)의 연구에서 가해 입장 전체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심리적 폭력 .81, 신체적 폭력 .75, 성적 폭력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다.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과 Solomon (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국문화에 맞도록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 억압(8문항), 분노 표출(8문항), 분노 조절(8문항)로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전

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압(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나 안으로는 앙심을 품은 경향이 있다 등)과 분노 표출(예: 나는 소리를 지른다 등), 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조절(예: 나는 참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등)을 사용할 것이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분노 억제 .76, 분노 표출 .74, 분노 조절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대상자 총 339명의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산출하여 *t*-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의 성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착취/자기중심성은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표불안정($t=-3.192, p<.01$),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t=-2.668, p<.01$), 과민/취약성($t=-6.568, p<.001$), 소심/자신감부족은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3.775, p<.001$),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분노억압은 성별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고($t=-2.549, p<.0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노표출은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능적 분노표현의 분노조절은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4.457,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가해의 하위요인 심리적 폭력($t=-3.252, p<.01$), 신체적 폭력($t=-3.762, p<.001$)은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상관분석 실시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54, p<.01$).

표 1.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t*-검증 결과

(*N*=339)

측정변인	하위변인	남자(<i>n</i> =133) <i>M</i> (<i>SD</i>)	여자(<i>n</i> =206) <i>M</i> (<i>SD</i>)	<i>t</i>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2.60(.85)	2.89(.79)	-3.19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2.88(.58)	3.06(.64)	-2.668**
	착취/자기중심성	2.22(.57)	2.33(.56)	-1.847
	과민/취약성	2.36(.63)	2.85(.70)	-6.568***
	소심/자신감부족	2.70(.70)	2.99(.65)	-3.775***
역기능적 분노표현	분노억압	1.87(.51)	2.03(.63)	-2.549*
	분노표출	1.74(.44)	1.81(.54)	-1.239
기능적 분노표현	분노조절	2.71(.57)	2.43(.58)	4.457***
데이트 폭력 가해	심리적폭력	1.56(.42)	1.75(.66)	-3.252**
	신체적폭력	1.09(.29)	1.25(.49)	-3.762***
	성적폭력	1.07(.36)	1.10(.41)	-.581

* $p<.05$, ** $p<.01$, *** $p<.001$

표 2. 전체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N=33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26**	1												
3	.337**	.506**	1											
4	.549**	.588**	.519**	1										
5	.438**	.324**	.287**	.655**	1									
6	.723**	.684**	.664**	.905**	.726**	1								
7	.280**	.282**	.317**	.478**	.461**	.490**	1							
8	.183**	.228**	.312**	.244**	0.059	.260**	.406**	1						
9	.281**	.304**	.375**	.439**	.328**	.457**	.866**	.809**	1					
10	-.139*	-.168**	-.209**	-.261**	-0.068	-.224**	0.018	-.276**	-.139*	1				
11	.188**	.162**	.300**	.292**	0.045	.252**	.295**	.440**	.430**	-.151**	1			
12	.179**	.132*	.269**	.251**	0.087	.241**	.207**	.348**	.325**	-0.076	.733**	1		
13	0.101	0.029	.168**	.111*	0.037	.114*	.171**	.231**	.237**	0.011	.493**	.750**	1	
14	.192**	.150**	.303**	.283**	0.061	.254**	.281**	.428**	.414**	-.119*	.950**	.897**	.705**	1

* $p < .05$, ** $p < .01$

1. 목표불안정 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 착취/자기중심성 4. 과민/취약성 5. 소심/자신감부족 6. 내현적 자기에 전체 7. 분노억압 8. 분노표출 9. 역기능분노표현 10. 기능적분노표현(분노조절) 11. 심리적 폭력 12. 신체적 폭력 13. 성적 폭력 14. 데이트 폭력 가해 전체

둘째,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14, p < .01$). 역기능적 분노의 하위 요인 중 분노억압($r = .281, p < .01$), 분노표출($r = .428,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조절($r = -.139, p < .05$)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57, p < .01$).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하위요인인 분노억압($r = .490, p < .01$), 분노표출($r = .260, p < .001$)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기능적 분노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224,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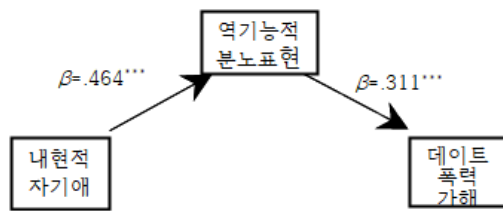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3단계를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첫 번째 남학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남학생) (N=133)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 ²	F	B	SE	β	t
1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047	6.301*	.144	.058	.216	2.510*
2	내현적 자기애	역기능적 분노표현	.215	35.434***	.365	.061	.464	5.953***
3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122	8.929***	.048	.063	.071	.764
	역기능적 분노표현	데이트 폭력 가해			.265	.080	.311	3.326**

*p<.05, **p<.01, ***p<.001



Sobel Test statistic z=2.89, p<.01

그림 3. 남학생의 최종모형 (완전매개)

1단계 예측변인 내현적 자기애는 준거변인인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216, p<.05$), 2단계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464, p<.001$). 3단계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통제했을 때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준거변인인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매개효과의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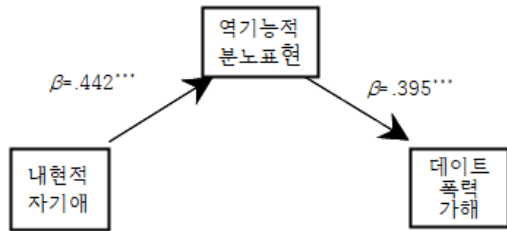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 test 값($z=2.89,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여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1단계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준거변인인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45, p<.001$), 2단계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442, p<.001$). 3단계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통제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역기능적 분노가 완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 test 값($z=4.34,$

표 4.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여학생) (N=206)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 ²	F	B	SE	β	t
1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060	12.746***	.233	.065	.245	3.570***
2	내현적 자기애	역기능적 분노표현	.196	48.875***	.440	.063	.442	6.991***
3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185	22.598***	.067	.068	.070	.983
	역기능적 분노표현	데이트 폭력 가해			.377	.068	.395	5.529***

*p<.05, **p<.01, ***p<.001



Sobel Test statistic $z=4.34, p<.001$

그림 4. 여학생의 최종모형 (완전매개)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3단계를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집단 모두에서 기능적 분노표현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25세에 해당하는 연애경험이 있는 부산지역의 대학생 339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배재은 2016; 신현경, 2016).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김시원, 박경, 2012)도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최인희, 2005). 이처럼 성별에 차이가 없거나 본 연구에서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의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노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분노표출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분노억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조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압이 남학생의 분노억압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김유정, 2009; 신현경, 2016). 백승혜와 현명호(2008)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분노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고, 분노억압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억압과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김시원, 박경,

2012)도 있으며, 분노에 대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보고도 있다(Averill, 1982). 이처럼 분노표현방식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가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폭력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성차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있으나(김예정, 김득성, 1999; 김정란, 김경신, 1999; 김유정, 서경현, 2009; 하예지, 서미경, 2014; 박미랑, 2009; Kelley, Edwards, Dardis, & Gidycz, 2015),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 빈도가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다(서경현, 2002; 이지연, 오경자, 2007; 배재은, 2016; 이아람, 2017; Archer, 2000; O'Leary & Slep, 2012).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가해율이 남성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자가 지역사회 비임상군인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고 데이트 폭력 가해의 빈도에 비해 강도 높은 가해의 수준은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ris와 Beach(1987)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에 있어 여성은 비교적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비해 남성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남녀의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이 데이트 폭력 가해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Johnson(2010)은 심각한 학대관계에 있는 가해자나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남녀가 비슷한 가해율로 나타나는 경우는 폭력이 일상적이며 양방향 형태로 폭력이 발생할 때에 나타난다

고 하였다. 또한 Stark(2010)는 폭력의 가해율이나 피해율이 비슷하여도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만성적인 학대나 상해의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Epstein-Ngo 등, 2014).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성차는 데이트 폭력 가해의 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 보단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다양한 맥락적인 문제를 숙고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와 기능적 분노표현은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분노 억압과 분노표출은 데이트 폭력의 심리적 폭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 조절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심리적 폭력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김시원, 박경, 2012; 배재은, 2016; 이아람, 2017)를 종합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는 데이트 폭력 가해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

및 여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인 남학생 및 여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통제했을 때, 예측변인인 남학생 및 여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준거변인인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및 여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지만,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사이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만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데이트 폭력 가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아람(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김시원과 박경(2012)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가 부분매개함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자 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선행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은 발달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 대학생에 비해 부적응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추후 대상에 따른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남녀학생집단 공통적으로 기능적 분노표현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 1 검증에서 여학생 보다 기능적 분노표현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중다회귀분석에서 그러한 결과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분노를 기능적으로 잘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 데이트 폭력 가해를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한다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를 행한다기보다는 그들이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했을 때 데이트 폭력 가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상담적 개입방법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애의 치료에 관점을 두기보다 기능적인 분노표현 방법의 훈련에 초점을 둔 상담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일반 공격성 모델 GAM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GAM 이론을 적용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를 설명하면 직접적인 원인 및 과정의 첫 번째인 입력 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개인요인과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 등을 겪게 되는 상황요인이 만난다. 두 번째인 경로 단계에서 현재 내적 상태인 인지영역에서 적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분노의 감정이 높아지고 각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야기된다. 세 번째 결과 단계의 평가·의사결정과정에서 분노표현을 역기능적으로 표현(분노표출, 분노억압)하면 공격적 행동 즉, 데이트 폭력 가해로 갈 수 있고, 분노표현을 기능적으로 표현(분노조절)할 때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GAM 이론은 현재 내적 상태의 인지, 감정, 각성이 특정 순서로 발생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로 단계의 현재 내적 상태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느껴 인지영역에서 적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각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내적 상태가 각성되어(예: 운동, 알코올 등), 인지적영역에서 적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 결과단계의 평가·의사 결정 과정에서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를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학습되어지고 지식구조가 형성되어 사회적인 만남(데이트 상황의 갈등)에서 폭력이 되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폭력적인 성격구조로 굳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폭력(IPV)을 GAM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이후 GAM 이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령집단 뿐만 아니라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를 매개로 하여 효과를 살펴본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이후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역시 다양한 연령집단 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내적 열등감과 부정적 자기상 때문에 ‘공격 가능성’에 과민하므로,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는 충고나, 스스로의 편견을 고려한 합리적인 거절 등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분노를 경험하곤 하는데(한수정, 2016), 이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때 상대

방에게 분노를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과 교육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으로 인지행동치료의 접근인 ‘통합인지행동치료(ICBT)’,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VR-CBT)’, ‘수용-전념 치료(ACT)’ 등을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데이트 커플 집단 등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상담 및 교육훈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구슬이, 김진숙(2017)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의 연령대에 따른 분석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분노조절 실패로 인한 데이트 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이나 사회생활 진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예방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가해,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외에 개인적 면담, 제 3자에 의한 보고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므로 심각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결과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 가해의 심각성에 의미있는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에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자료(홍영오, 2017)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의 가해 유형에 행동통제도 71.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행동통제를 포함한 데이트 폭력 가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고민정, 김선정, 조서지, 조인경 (2015). 내현적 자기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초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80-480.
- 구슬이, 김진숙 (2017).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매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55-77.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경신, 김정란 (1998).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행동과 관련 변인. 가정과학연구, 8, 1-15.
- 김상희 (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심리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원, 박 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예정, 김득성 (1999a).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I)-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예정, 김득성 (1999b).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II)-피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187-202.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박미량 (2009).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 성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3(2), 193-227
- 박세란 (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재은 (2016).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 및 분노 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13-227.
- 신현경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억제,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 (2006).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9-726.
- 이아람 (2017).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33-450.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K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수정 (2016).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llen, J. J., Anderson, C. A., Bushman, B. J. (2017).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9, 75-80.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ris, I., & Beach, S. R. H. (1987). Validity of self-reports of marital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2(2), 139-149.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iere J. & Jordan, C. E. (2009). *Childhood maltreatment, intervening variables, and adult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women: An overview. Trauma, Violence, & Abuse*, 4, 375-388.
- Briere, J. (2002).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e childhood abuse and neglect: Further development of an integrative model.* In J. E. B. Myers, L. Berliner, J. Briere, C. T. Hendrix, T. Reid, & C. Jenny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nd ed.), 175-20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hester, D. S., DeWall, C. N., (2017). The roo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9, 55-59.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4). An examination of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 women &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buse*, 16(2), 136-152.
- Deffenbacher, J. L., & Stark, R. S. (1992). Relaxation and cognitive-relaxation treatments of general ang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pp. 158-167.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3-966.
- Dutton, D. G. (1998). *The abusive personality: Violence and control in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15(3), 337-350.
- Epstein, N., Finnegan, D., & Bythell, D. (1979). Irrational beliefs and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3), 608-610.
- Epstein-Ngo, Q. M., Walton, M. A., Chermack, S. T., Blow, F. C., Zimmerman, M. A., & Cunningham, R. M. (2014). Event-level analysis of antecedents for youth violence: Comparison of dating violence with non-dating violence. *Addictive Behaviors*, 39(1), 350-353.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and Victims*, 14(4), 365-380.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Helff, C. M., & Laughlin, J. E. (2002). Model for Predicting Dating Violence Anxious Attachment, Angry Temperament, and Need for Relationship Control. *Violence and Victims*, 17(1), 35-47.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p91-105.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rper, F. W., Austin, A. G., Cercone, J. J., & Arias, I. (2005). The role of shame, anger, and affect regulation in men's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648-1662.
- Johnson. M. P. (2010). *A typology of domestic violence: Intimate terrorism, violent resistance,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Kelley, E. L., Edwards, K. M., Dardis, C. M., & Gidycz, C. A. (2015). Motives for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 gendered analysis. *Psychology of Violence*, 5(1), 56-65.
- Levy, B. (1991).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Norlander, B., & Eckhardt, C. (2005). Anger, hostility, and male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2), 119-152.
- O'Leary, K. D., & Slep, A. M. S. (2012). Prevention of partner violence by focusing on behaviors of both young males and females. *Prevention Science*, 13(4), 329-339.
- Ryan, K. M., Weikel, K., & Sprechini, G. (2008). Gender difference sin narcissism and courtship violenc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58, 802-813.
- Shorey, R. C., Cornelius, T. L., & Idema, C. (2011). Trait anger as a mediator of difficulties with emotion regulation and female-perpetrated psychological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26(3), 271-282.
- Stark, E. (2010). Do violent acts equal abuse? Resolving the gender parity/asymmetry dilemma. *Sex Roles*, 62, 201-21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pielberger, C. D., Kranser, E. C., & Solomon, E.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pp. 203-222). New York: Springer Verlag.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s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A. Chesney & R.H. Rosenme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 5-30). New York: Hemisphere.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48-67. Kassinove, h.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aylor & Francis.
- Taft, C. T., Street, A. E., Marshall, A. D., Dowdall, D. J., & Riggs, D. S.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ger, and partner abuse among vietnam combat vetera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270-277.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In A. C. McFarlane & L. Weisaeth (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pp.182-213). New York: Guilford Press.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이완기 (2016. 3. 6). ‘데이트 폭력’ 20~30대가 58%... 최근 10년간 재범률 77% 달해, 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울경제: 사회일반

<https://www.sedaily.com/NewsView/1KTNO0D10W>

탁광호 (2019. 9. 5).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7월~8월)운영 결과. 경찰청 보도자료: 형사과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1B000001122272000

원 고 접 수 일 : 2020. 02.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03.

최종게재결정일 : 2020. 04. 03.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xpression of Anger

Gwi Suk Nam

Soo 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with regard to covert narcissism, dating violence, and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To this end, 339 college students (133 males, 206 females) with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were recruited. They responded to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and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dating violence, and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differed significantly by gender.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dating violence, and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for mal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ting violence while 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were negatively correlated. For females,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ting violence while 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Fourth, dys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for both males and females, but functional expressions of anger had no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contro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for students which may help those with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to functionally express their anger. Future research should analyze dating violence prevention and counseling programs.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dating violenc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functional anger expression*